

KBSi 치료비지원 수혜환자 인터뷰

KBSi 지원을 받아 이식치료를 받은 후 건강하게 지내고 있는
김선아 양을 만나봤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우선 저의 몸 상태는 아직은 완벽하게 다 좋아졌다고 말하지는 못하지만 많이 호전되어 병원에는 한 달에 한번 정도 가고 있습니다. 평소에 집에서의 생활은 2년 전에 그만 두게 되었던 공부를 다시 시작하려고 검정고시학원에 다니고 있으며, 체력단련을 위해 간단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공부든 운동이든 힘들지 않겠냐고 조금만 더 쉬었다 하라고 걱정하시지만 요즘 전 그동안 아파서 하지 못했던 것을 할 수 있는 하루하루가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하답니다.

처음 발병 시 상황은? 음... 저는 재생불량성 빈혈이 아니었어요. 맨 처음에는 월슨 병(구리 병)이라는 병명으로 간이식을 받았어요. 그런데 보통 간이식을 하고 한 달 정도면 퇴원을 하는데 저는 간이식 후 백혈구, 과립구, 혈색소, 혈소판 모두 수치가 너무 낮아서 3개월 정도 1인실에 격리 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 낮은 수치로 퇴원을 했고요. 퇴원하고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받아도 상태가 별로 좋지 않고, 수치도 좋아질 생각을 하지 않아 골수검사를 받고 혈액종양내과 외래를 보았습니다. 간이식 6개월 만에 재생불량성 빈혈이란 것을 알았어요. 그때 혈액종양내과 교수님께서 간이식 못 지 않을 만큼 위험한 병이라며 입원을 해서 면역치료를 받고 제안을하셨습니다. 집에 오는 길 차안에서 이렇게 생각 했죠. '겨우 간이식 했는데, 이제 건강 해졌구나 했는데 다시... 생전 듣지도 못한 병에 걸리다니...' 너무 압담했습니다.

치료 중 힘들었거나 기억에 남는 일이라면... 우선 학교를 그만두었을 때가 가장 속상했었습니다. 지금도 학교를 생각하면 어딘가 모르게 마음이 아픕니다. 한동안은 너무 학교에 가고 싶어서 집에서 학교를 뚫어져라 쳐다본 적도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교복 입은 또래 아이들을 보면 정말 예뻐 보이고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집에서 교복을 입어 보곤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에 남는 일은 1차 이식을 실패했을 때입니다. 이식만 받으면 다시 건강해 질수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모든 치료과정을 잘 견디고 있다고 그래서 모두들 잘 될 것 같다고 말 씀하시어서 기대도 많이 했었는데 열이 나면서 실패를 했습니다. 생착이 되지 않은 거죠. 실패했다는 소리를 듣고 저는 그날 평평 울었습니다. 친한 간호사 선생님께서 들어왔는데 울음을 참을 수가 없어서 그 선생님 앞에서 막 울었어요... 너무 속이상해서... 하지만 그날 딱 하루만 맘껏 울고 다음날부터 더 환하게 웃고 즐거운 마음으로 다른 치료 방법을 찾았어요. 매일 울고 있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었기에...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고마운 분은? 너무 많은 분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고마운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 학교 선생님, 친구들, 교회 분들, 이웃 분들 등 등... 이분들 중에 제일 감사를 드린다면 누구라고 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우선 저희 교회 목사님께 감사드려요.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아 제가 아팠는데, 제가 아플 때 병원에서 같이 계시주시고 항상 기도해주시고 바쁘신 와중에도 먼 길을 많은 집사님들과 함께 일주일에 한번 이상은 꼭 오셔서 기도해 주셨어요. 물론 저는 못보고 엄마만 보고 가실 때가 더 많았지만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소개해주신 오황택 사장님께 감사드려요. 지금도 저를 후원해주시고 이식할 때, 아파서 입원할 때도 항상 도움을 주셨어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 때문에 힘들었을 우리 가족 아빠, 엄마, 언니, 헌혈증을 구해주고 걱정해준 친구들, 마음으로 항상 같이한 재생불량성빈혈카페 회원들, 교회 집사님들 등 다들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꿈꾸는 미래는... 우선 더욱 건강해 지는 게 첫 번째 소망입니다. 아프면서 느꼈지만 건강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사소한 것, 이렇게 글을 쓰는 것, 말하는 것, 웃는 것, 걸어 다니는 것 등 너무 감사합니다. 사소한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평생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앞으로 아프지 않고 공부를 해서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금은 공부를 시작할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몇 년 뒤에는 꼭 예쁜 여대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다른 환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 이식을 받지 못하신 분들, 이식을 받으신 분들 모두 나름의 과정에서 너무나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걸 잘 압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아무리 힘들고 슬프더라도 울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겁내지 않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희망과 용기 절대 버리지 마세요. "왜 하필 내가 이런 병에 걸렸지? 아 슬퍼..."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신다면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나쁘게 생각할수록 마음의 병이 커지고 그러면 몸의 병도 커져요. 모두들 합세하고 좋은 상황이 아니더라도 최대한 좋은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곳곳이 치료 받으시면 나중에 꼭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모두들 파이팅입니다!!